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0, 출처와 형식 비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해석학과 성경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사 비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은 논리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와 텍스트를 생산하는 역사적 사실, 배경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나아가,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마지막으로 독자가 주요 주체인 독자 중심 접근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의미와 텍스트를 담당하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접근, 역사적 비평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역사비평이 책의 저자와 역사적 배경, 원작 독자와 그들의 상황, 텍스트 내의 구체적인 역사적 참조,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역사적인 유형의 접근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다른 접근법도 고려하고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세션에서 매우 간략하게 소개한 자료 비평입니다. 본문 뒤에 숨어서 저자가 자신의 글에 활용한 문서인 기록된 출처를 밝혀내려고 시도하는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특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저자가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소스, 서면 소스에 어느 정도 의존합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서술자가 출처, 서면 출처에 의존하고 심지어 그러한 출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들의 의존성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예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료비평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서 문서 뒤에 있는 가능한 기록 자료를 찾아내거나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발전했으며, 따라서 성경의 저자들은 역사적 자료에 의존하고 다른 기록 출처에 의존했다고 가정합니다. 자신의 작곡을 위해. 구약과 신약의 자료비평과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활용하거나 제시하고, 그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구약성서, 우리는 이미 역대기를 고려하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 구약성서 저자들이 때때로 이전 구약성서의 기록과 본문을 선택하여 재해석하고 자신의 주장에 맞게 재주장한다는 사실을 논의할 때 이미 역대기를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독자층. 역대기 첫째와 둘째는 열왕기 첫째와 둘째의 자료를 출처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시 사용하지만, 열왕기 첫째와 둘째는 역대상과 둘째의 저자가 끌어들이는 출처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글을 위해서. 예를 들어,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한 본문을 활용하기 위해, 그러나 역대기 첫째와 둘째와 다른 문서나 다른 책, 특히 역대상과 17장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구절로 시작합니다. 10,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네 수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네 뒤를 이을 사람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전임자에게서 내 사랑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결코 내 사랑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15절은 나단이 이 계시의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고하였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 이전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함께 읽어보면 여러 곳의 표현이 사실상 동일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소스.

작가는 작가 중 한 명이 다른 작가를 자신의 작곡에 대한 소스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텍스트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선택할 것이며 이는 편집 비평이라고 알려진 다른 방법 중 하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자가 자신의 소스를 활용할 때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논의할 방법인 편집 비평에서 저자가 소스를 어떻게 가져왔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어떻게 자신의 출처를 취하여 이제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용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요점은 표현과 내용의 유사성 때문에 분명히 성경 저자들이 이전 자료, 심지어 이전 성경 자료를 자신의 구성에서 채택하고 활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성서 연구의 고전적인 예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나올 것이며, 사실 그것은 구약성서의 처음 다섯 권인 오경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은 구약의 처음 다섯 권 중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 두 가지 창조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우 유사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1장과 2장에서 일부 학자들은 창조의 여러 부분이 기록되는 방식에서 스타일의 차이나 순서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다른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료 비평의 전성기 초기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서로 다른 설명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뒤에 있는 두 개의 별도 출처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후의 저자는 이 두 출처를 취하여 이제 자신의 설명에 함께 넣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통찰력은 오경 전체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려진 JEPD 이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J, E, P, D 라는 문자는 오경 전체에 존재하는 네 가지 별도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 J는 야훼의 이름이며 아마도 다음과 같이 쓴 저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정 관점에서 출처를 기록한 야훼의 이름, 예를 들어 문자 D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쓴 누군가가 오경의 일부를 구성한 신명기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점은 역사적으로 저자가 작성한 네 개의 별도 소스가 있고 학자들은 이를 J 소스, E 소스, D 소스, 그리고 P 소스, 즉 성직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P 소스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자들은 네 개의 개별 소스를 분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더 나아가서 연대를 측정하고 이러한 소스의 원래 구성에 대한 설정까지 제공했지만 지금은 훨씬 나중에 저자는 이 네 가지 별도의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최종 형식으로 결합했습니다. 내 목적은 비록 내가 이것을 반드시 구독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기준에 따라 소스를 격리하는지, 흥미롭게도, 이전 학자들이 출처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준 중 일부는 다른 학자들도 본문의 통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출처 등을 야기한 가상의 공동체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추측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의 주된 목적은 단지 출처 비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작성자가 선택한 기본 서면 소스를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과 같은

책에서는 문서들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원천으로 기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경에 관해서는 이것은 더 가정적인 것입니다. 열왕상 첫째와 둘째, 사무엘, 역대기가 있다는 사실, 또는 저자가 유다 왕의 연대기에 명시적으로 호소하는 언급이 있는 것과는 달리 누구도 JEPRD의 존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그러나 자료비평은 구약성경 본문의 기본 자료를 분리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구약학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더라도, 자료 비평은 우리가 조금 앞서 언급한 방법, 즉 소스를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 편집 비평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경 전체이므로, 이제 최종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단순히 가상의 출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본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자료비평의 전형적인 예는 아마도 공관복음서, 처음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열왕기와 역대기, 사무엘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처음 세 복음서(요한복음은 포함된 자료, 사용된 단어 및 언어가 매우 다르지만 처음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두 복음서 사이의 어떤 유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의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두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비슷한 순서, 때로는 동일한 순서이지만 그 이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단어의 위치가 사실상 동일하며 내 학생 중 누군가가 논문, 연구 논문, 공관복음서와 같은 정도로 순서와 표현이 일치했다면, 나는 학생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렸음에 틀림없는 일종의 협력이나 차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아니면 둘 다 비슷한 문서에서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선행 연구 논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관복음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장, 9장에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곧 예수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누가복음 3장과 7장부터 9장을 들어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일렀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 가지 모두 세례 요한이 있고 마태와 함께 예수를 말한 것 같지만 두 가지 모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영어 번역이 두 언어 모두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포착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된 단어뿐만 아니라 서술 자체의 일부에서도 그 표현이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제 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읽었을 때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은 매우 다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단지 동일한 사건을 때때로 동일한 순서로 기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표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글썄, 대부분의 신약성서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관계로 인해, 예를 들어 한 가지 설명은 마태, 마가, 누가가 아마도 동일한 출처에 접근했거나 심지어

구전 전승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 사람 모두 자신에게 전달된 동일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너무 가깝다는 사실로 인해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사이의 문학적 관계를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회기 전에 영감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세 사람 모두 비슷하게 글을 쓴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중 일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가장 인기 있는 견해는 소스 비판적 견해입니다.

즉,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 하나가 다른 두 성경의 출처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 필자 중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자세히 설명할 생각이 없는 수많은 이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여전히 어거스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주장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와 마가는 마태의 말을 빌려서 마태를 그들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분명히, 특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자료가 많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자료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Luke는 Mark에게서 찾을 수 없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Luke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목격자 기록과 기타 문서를 알고 있는 1장 1-4장으로 돌아가면 누가는 분명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자신의 자료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마태가 먼저 썼고, 마가와 누가는 마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략하게 집중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신약 학자와 학생들이 고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마가복음의 우선순위로 알려진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마태와 누가는 둘 다 마가복음을 서로 독립적으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활용하여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독립적으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기초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많은 정보가 포함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어디에도 없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가나 마태복음에는 없는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모두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마크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마태와 누가가 모두 마가를 사용했지만, 누가에 따르면 다른 서면 문서와 출처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목격자의 증언에서도 나온 다른 자료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라면 의심할 바 없이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 중 많은 것을 직접 보았고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며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활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비교할 때 마가복음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Matthew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가정하면 Mark는 Matthew에서 많은 자료를 삭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Matthew의 내용이 꽤 길고 더 많은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마태가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가 마태나 누가를 활용했다면 그는 많은 자료를 생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다면 마가복음 전체가 아니라 대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다른 주장은 마태와 누가가 때때로 마가보다 더 매끄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문법이나 기록 방식이 조금 더 짧거나 거칠 수 있는 반면, 마태와 누가는 더

매끄럽게 보이며, 마태와 누가가 마가에서 거칠다고 생각한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는 때로는 마태와 누가가 신학적으로 더 명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마가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매튜와 루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마가를 언급할 때나 둘 다 마가를 언급할 때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마가를 언급하는 방식에서 서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적은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관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 다시 등장한 이 견해는 출처 비판적 견해입니다. Mark가 원본 소스라고 가정합니다. 마가복음은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서 마태와 누가의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마가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 자신의 복음서를 작성하는 데 마가의 대부분을 활용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목격자 기록을 통해 다른 자료와 출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음서에 붙은 제목,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원래는 문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는 그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고 내 생각에 그것이 신뢰할 수 있다면, 마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목격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자신들이 포함시켰을 다른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를 보면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채우는 것입니다. Q 소스인 Q를 언급하는 신약성서 학생들을 자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Q는 단순히 출처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의 첫 글자이며,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설명하고 참조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마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지만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바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둘 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마태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산상수훈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자료는 표현상 매우 유사하므로 많은 신약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Q라고 붙인 또 다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 를 사용하지만 그들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 다른 문서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문서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문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Q는 산상 수훈과 같이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의미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Q는 Matthew와 Luke가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더 가상적인 소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아마도 이 Q도 활용했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특정 문서이든 가르침과 정보의 본체이든 간에 말이죠. 마태와 누가는 둘 다 그것을 접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활용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학자들은 Q를 만든 공동체와 그것이 유래했을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찾는 상황, 그리고 Q의 신학과 그것이 다루고 있는 상황, 즉 추측 위에 추측을 쌓는 상황을 제안함으로써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Q가 실제 문서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종류의 일이 만연하거나 약간 이상하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공관복음은 신약성경에 대한 자료비평의 일차적인 시작점이자 진입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관복음서 사이의 유사성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고 대부분은 문학적 관계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소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으며 다른 복음서들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 비평은 실제로 공관 복음서 외부로 퍼졌습니다. 때때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자료 비평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공관복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외의 자료비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자료비평에 관한 여러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더 폭넓게 범위를 넓혀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이 출처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에서 그가 때때로 기존 자료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가장 눈에 띄고 잘 알려진 두 가지 예는 바울의 두 서신에 나오는데, 그 중 하나는 골로새서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입니다. 나는 빌립보서 2장에서 아마도 더 일반적이고 더 잘 알려진 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중앙에는 잘 알려진 그리스도 찬송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지사 본질을 취하셨으니 종의

신분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흥미롭게도 제가 보고 있는 영어 번역에서도 모든 영어 번역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영어 번역에서는 이 구절들을 일종의 시적인 방식, 운문 형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미 존재하는 찬송을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썼다고 확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미 초대 교회에 유통되고 활용되었던 찬송을 빌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본문, 또 다른 고전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장인데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는 또 다른 잘 알려진 그리스도 찬송은 바울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초기 찬송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활용하고 초대교회에 돌던 것인데, 지금은 바울이 자신의 작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하기는 어렵고 학자들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출처, 신약에서 가능한 출처의 중요한 문제의

또 다른 예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의 관계입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순서와 내용은 물론 단어도 비슷할 정도로 매우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 중 하나는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유다서의 내용을 자신의 글에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서의 대부분이 베드로후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사용하고 많은 부분을 남기는 것보다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사용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따라서 자료 비평은 단지 공관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다른 학자들은 신약성서 본문의 다른 부분 뒤에 있는 자료인 기록된 자료의 가능성을 탐구해 왔습니다. 해석적 통찰력을 드러내는 능력에 관한 한 자료 비평에 유익할 수 있는 신약성서의 마지막 예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며, 다시 한번 제 목적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알려진 베드로전서 3장 3장 끝부분 18절부터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소수 곧 모두 여덟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거기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많은 신약의 학생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려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었습니다.

주어진 한 가지 설명은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 묵시적인 작품, 계시록과 다니엘과 같은 묵시적인 작품을 그리고 있지만 특히 잘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묵시적인 작품 중 하나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묵시적인 작품은 환상가, 누군가의 비전에 대한 서술적 설명, 누군가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비전과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씁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없는 잘 알려진 묵시록 중 하나는 에녹서입니다. 에녹 문헌에는 창세기 6장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서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느니라. 에녹서 1장에서는 권위의 자리를 떠난 천사 존재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며, 이제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천사 존재들이 한 일로 인해 묘사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의 출처나 배경이라고 제안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에녹전서와 그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 접근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해석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문자 그대로 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일 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일반적인 목시적인 이야기나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목적은 이 시점에서 그 해석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 비평이 본문을 읽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고, 심지어 신약에서도 자료 비평이 어떻게 범위를 넓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외에는. 다시 한번 평가를 통해 두 가지 관찰을 합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소스 비평에서 제가 생각하는 위험 중 하나는 적어도 일부 통역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이 때때로 추측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재구성하려고 할 때요. 공관복음서와 같은 저작물에서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도 우리는 관계에 대한 이론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하지만, 복음서 중 하나가 관계 이론의 원천으로 기능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른 하나. 그러나 반면에 사용 가능한 소스가 없는 경우에는 작가가 소스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변경을 했다고 제안하거나 심지어 해당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측일 수 있습니다. 출처는 해당 출처의 날짜, 배경, 신학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두 번째 관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저자들이 이전 자료에

의존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재구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장의 첫 번째 본문은 다음과 같은 좋은 예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최종 텍스트를 다루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출처를 가져와 텍스트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이미 언급한 또 다른 비평, 즉 편집 비평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편집 비평은 최종 결과물과 텍스트, 그리고 저자가 이를 통합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출처 비평은 저자의 작품에 기여했을 수 있는 출처를 식별하고 저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추측을 피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신약성서 연구에서 자료 비평은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형식 비평으로 알려진 또 다른 형태의 비평의 등장에 자리를 내주거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비평은 자료비평과 같습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신구약성서의 기록된 문서 뒤에 숨어 개별 양식, 특히 구전 양식을 회복하고 밝혀내려는 시도입니다. 구성.

따라서 양식비평은 흔히 하는 일로서, 문서를 살펴보고 형식을 분리하여 구술 역사를 추적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형태는 어떻게, 어디서 발전했는가? 본문의 개별 단위를 보면 개별 형태이다. 내가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 형식의 설정과

그 형식이 어떻게 발전하여 이제 구약과 신약성서에서 찾은 내용이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양식 비평에는 종종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별 형태, 개별 단위와 그 형식, 모양과 기능을 연구할 수 있지만, 해당 형식의 원래 설정과 구전 전통, 그리고 그것이 본문에 포함될 때까지의 발전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렇기 때문에 양식 비평도 어떤 면에서는 양식이 글로 쓰여진 시점까지의 구전 시기를 밝혀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아마도 형식 비평의 가장 유익한 측면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의 개별 단위와 형식을 식별하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을 달리 해보세요. 그러나 비평의 형태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구약과 신약의 몇 가지 예를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의 목표는 반드시 내가 이러한 사례에 동의한다고 제안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료 비평이나 형식 비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양식비평은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했는데, 헤르만 궁켈(Herman Gunkel)이라는 저널 학자가 시편의 특정 형태를 식별하고 분류하고 그 배경과 기능 등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의 비평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형식의 네 가지 특징을 식별하는 접근 방식을 따르는 구약 문학의 형식이라는 흥미롭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 즉, 형태의 구조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장르를 보고, 형태에 어떤 라벨을 붙인 것인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어떤 형태인가? 그렇다면 형태의 가능한 설정을 살펴보면, 어떤 설정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을까? 잠시 후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도, 이 형태의 기능이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신합니다. 바로 식료품 목록입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식료품 목록을 보면 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목록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러티브와 설명이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설명이 매우 제한적인 항목 목록일 뿐이지만 문법이 거의 없는 항목 목록이거나 산문이나 설명이 없고 간단한 목록일 뿐입니다. 시간이 매우 긴 항목입니다.

그러한 구조의 장르는 식료품 목록, 즉 식료품점에서 구매할 품목, 특히 식품 품목의 목록을 단순히 제공하는 이런 종류의 양식에 우리가 제공하는 장르 레이블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료품점의 환경입니다. 식료품점에 갈 때

목록을 만들 것이므로 다음 주나 한 달 동안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에 도착하면 무엇을 사야 할지 상기시켜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성서에서도 형식을 그렇게 취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경우 시편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도 찬양의 시편이 있고, 애도의 시편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흔한 시편인데, 이 시편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생활 속에 등장하여 활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설정. 매우 일반적인 시편은 애도, 애가의 시편입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도 그 자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또는 겪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기자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넷째, 청원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종종 서원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유형의 시편은 진입 시편(Entrant Psalms)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시편 15장에 그 예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예가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시편 15장이 시작되는 시편의 흥미로운 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됩니다, 주님, 누가 당신의 성소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행실이 온전하며 의를 행하며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를 멸시하고 존경하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해로울지라도 맹세를 지키며,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꾸어주며, 무고한 자를 상대로 신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첫 번째 예배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누가 당신의 성소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산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2편부터 5편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규정의 형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배경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성전에 실제로 도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예배에 참여 하기 위해 성전에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일반적인 형식은 특히 예언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구약의

부르심 이야기로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일부 선지자의 서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초기 장들에는 모세의 삶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예언적 부르심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개인, 즉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봉사하도록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웠고 통화 내러티브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공통된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3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기의 처음 세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봉사를 위해 부르시고 위임하시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부르심 서술 구조는 다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선지자나 사람에게 특정 활동이나 특정 봉사를 위임하거나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반대입니다.

하느님 나에게 화 있을진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다 출애굽기 기록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분은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일련의 반응, 일련의 반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반대에는 그 반대를 극복하는 넷째 하나님의 보증이 따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호가 주어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모세의 부르심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사명이 곧 선지자의 사명임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정은 아마도 메신저가 자신의 자격 증명을 보여 달라는 고대의 요구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적 부르심 이야기의 의도는 예언적 메시지와 활동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 이사야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 에스겔이 행하는 모든 것은 이제 확증을 받거나 이제 확실성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임인 부르심 이야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별개의 형태를 식별하고 그 구조, 형태의 장르, 그 설정이 무엇일 수 있는지, 어떤 설정이 발생했을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구약성경 본문에서 양식 비평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그런 형태, 그리고 그 형태의 기능이나 의도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형식비평이 구약성서와는 조금 다르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형식 비평 도 일반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형식비평은 자료비평과 마찬가지로 우선 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비평은 종종 역사성, 복음서의 역사성, 예수의 말씀과 그가 행한 일의 역사성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비평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는 세 가지 다른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식 비평은 형식,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개별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학자들은 선언 이야기, 예수가 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와 같은 레이블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식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또는 말씀이나 선언, 기적 이야기, 예수의 말씀, 예언, 잠언, 담론으로 절정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복음서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다양한 형태에 부여된 전형적인 명칭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식 비평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식을 찾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 15~17절에서 내가 원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5~17절인 것 같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이라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되, 그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선언 이야기의 예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의 선언이나 말씀으로 끝나는 이 간략한 이야기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형식을 사용하면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특히 복음서에서 형식 비평의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형식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식비평의 두 번째 특징은 삶의 배경을 뜻하는 독일어 용어인 *Sitz im Leben* 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 형식을 낳은 배경, 대개 그 배경은 초대교회의 삶에 있었던 일이었다. 초대교회 생활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이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이 형태를 만들었을까요? 이 형식이 무언가에 유용하다고 가정합니다. 저자들은 단지 역사를 적나라하게 쓴 것이 아니라, 이 문헌이 초기 교회의 삶에 유용했음을 형식을 통해 입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는 형식을 식별하고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생활의 어떤 환경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유대교와의 충돌이든, 교회의 일부 설정이든, 이 형태를 낳은 교회의 가르침이든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식비평의 세 번째 요소는 전승의 역사이다.

즉, 구강단계이다. 이 형식은 다시 초기 교회의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포함될 때까지 구두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은 이 구술 단계를 연구합니다.

이 책은 성경 본문에 포함될 때까지 이 형태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달을 추적합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성경 해석과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제 생각에 1위인 것입니다. 형태를 식별하고 단지 라벨을 붙이기 위해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것을 선언 이야기로 식별한다면 그것의 초점, 나의 해석의 초점은 절정의 말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 포인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형식을 식별하고 형식 비평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성경 본문의 더 큰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8장과 9장을 배열한 것처럼 긴 부분인 것 같다. 공통된 형태, 즉 기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모두 단순히 일련의 기적 이야기이므로 형식비평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형식비평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비유와 복음서의 예를 살펴보고 그러한 비평이 비유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발전해 온 이러한 세 가지 비평의 세 번째 형태, 즉 편집비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